바라지 않는 마음, 조건 없는 사랑을 하세요

☞ 19면에서 계속

박을 되먹고 또 씨가 남고 이러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의 떡공양입니다, 그래서.

공양, 전체가 다 먹을 수 있다. 원자가 입자가 되고 분자가 돼서 수효가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어도, 다 통신이 되고 전달이 되고 이렇게 같이같이 어울려서 돌아가면서 원자가 됐다 입자가 됐다 분자가 됐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리가 그렇게 많아도 다 통신이 돼서 내려 먹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이 마음들도 '부처님 공양한 그릇' 하면, 공양, 이 공양 한 그릇 할 때에 벌써 공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향! 누구가 덜 먹고 더 먹고 이런 게 없이 이 전부 허공이 다, 전체가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나물, 국 뭐, 이런 거는 사람이 살던 습관에 의해서 부모를 위한다고 그렇게 전부 차려 놓습니다. 그러면 그 차려 놓은 것만 영령이 보지 그 외의 것은 보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식들이 차려 놓은 요거를 요렇게 차리고 요렇게 차렸다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차린 거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그 마음을 본다 이겁니다, 조상이. 그 마음을 보고 그 차려 놓은 것이 얼마만 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허공 전체가 내 것 아님이 없이 그 떡 하나로써 해 놓는다면, 떡공양을 해 놓는다면 이 전체 돌아가는 그 광대무변한 법을 조상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없어집니다, 내 것 아님이 없기 때문에.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것 아님이 없고, 모두가 내 아픔 아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사랑, 의리, 도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역력하게 부처님과 한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려 놓고선 오히려 여러분의 작은 마음에서 정성을 한다고 또 때로는 네가 더 댔느니 내가 더 댔느니 또는 너는 마음에도 없는 거 했느니 말았느니 하고 서로 말다툼을 해 가면서, 그 음식도 돈을 더 댔느니 덜 댔느니 하면서 차립니다, 그나마도.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길러 준 은혜, 낳아 준 은혜 또는 모든 은혜를 생각해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덕 향을 올려라. 이 마음은 밝은 마음으로서 지혜롭게 마음을 아주 선명하고 광대하게 내어서, 그것은 향입니다. 마음을 내어서 이 떡공양을 올릴 때 모두가 부처님 한자리로 올려질 때에 모두가 통신이 되고 하달이 되고 그래서 모두가 다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내 거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거나 안 보이는 거나, 생각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모두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무명이 저절로 벗겨진다 이 소립니다. 돌아가신 부모들도 무명이 저절로, 얽히고설키고 묶여있던 무명이 그냥 벗겨진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한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마디를 마저 해야죠. 사람이 죽으면 인과로 인해서 뭉쳐져 있는 그 업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속에 든 중생들이 다 그렇게 한다면 어느 사이에 그 공덕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그 무명이, 묶였던 무명이 바로 무너지면서 풀어지면서 이것은 자유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이거 지내고 또 저거 지내고….

이것이 목탁으로 두들기고 염불만 해서 천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을 많이 차려 놓는다고 해서 영령들이 다 먹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살아생전에 살아오던 습 때문에, 그 습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떠나질 못하고 그냥 뱅뱅 돌고 돌면서 아는 집으로 돌고 떠나질 못하고, 반찬이나 국이나 이런 거 해 놓는 것만, 그 냄새나 맡으려고 하고, 이렇게 오히려 자손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이 개선해야 한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천도재도 그렇지마는 제사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둘이 아니기에 항상 제사도 집에서 지낼 때에 그렇게 향, 초, 다기물, 물은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밝게, 초는 밝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밝은 마음으로써 아주 발전적인 마음을 내는 게 향입니다, 마음의 향. 그런 데다가 바로 떡공양을 하면서 제사를 올리면서, 세 번 절하고 네 번째 가서 '이 모든 일체 부처님 자리에 한자리 하게 하는 것도 주인공밖에 없어.'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면은 그대로입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부모님이 승천을 했다고 해서 안 지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 기리는 마음이니깐 말입니다. "천도재를 지냈는데 왜 제사는 지내?" 이러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언제나, 언제든지, 부모한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지수화풍에도 그 감사한 은혜가 있고, 국민의 은혜, 일체 만물의 은혜, 하다못해 이 돌의 은혜, 모든 식물의 은혜, 이 은혜가 아니 되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포함해서 모두 한마음에 그저 둥글리는 마음으로써 한생각으로 둥글려 놓고 참 참다운 생각을 한 번 한다면, 그거는 삼만 번을 절하는 거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침착하게 개선해 나가고 마음으로써 발전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없이 타개할 수 있고 물리가 터지게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 모두 좋은 일이며, 스님네들이나 여러분이 다 그러합니다. 스님네들은 부처님의 대리로서, 여러분이 볼 때는 방편으로 대리 역할이요, 진실로서는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뜻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이치를, 진리를 그대로 우리는 받아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또 넷째, 예수재 등을 하고들 있습니다. 예수재를 얼른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요 다음에 목돈을 쓰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를 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치를 한 돈을 은행원들이 예치를 해서 통장에다가 딱 넣어 주고 그러면 됐지, 그 돈을 부숴뜨려서 음식을 만들고 닷새 엿새 이레까지 두들기고 온통 해 봤자 오히려 그 예치한 사람들의 손해란 말입니다. 예치를 한 돈에서 부숴으니까. 그러니까 예금을 찾아갈 때에 외려 예금한 돈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냉철하게 말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외려 줄어든다 이겁니다. 줄어도 아주 많이 줄어들죠. 왜냐?

그렇게 부숴뜨리죠, '인제는 이렇게 해 줬으니까 내 거다.' 이러고 쓰죠? 아, 이러니 공덕이 하나나 될 게 뭐 있습니까? 요 다음에 나올 때에 예금통장커녕 아무것도 가져 나올 게 없어져. 부숴뜨려 놓은 뒤에도 그 돈이 바로 내 절에 들어온 거니까 내 거다,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 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 쓸 데다가 써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공덕이 안 된다 이겁니다. 해주는 사람과 해 달라는 사람과 같이 맞아야 불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재를 올릴 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은행에다가 올리게 되면 상부에까지 지시가 갑니다, 이 돈 문제가, 즉 자재천에까지. 그래서 경리과에서, 경리과에까지 하달이 됩니다. 그래서 경리과에서 이 사람이 아무 때 연분에 이렇게 했는데, 아무 때 연분에 나갈 때는 이 통장을 찾아 가지고 나간다는 기록까지도 다 예치가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는 것을 우리가 전부 알고, 이 세상에 만물만생이 전부 우주간 법계에 다 전달이 돼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건 없어요. 절대적입니다.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에 돈대로 물건 사지 내가 물건 사고 싶다고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철칙입니다. 그러니 예수재라는 게 두들겨서만 되는 게 아니고, 마음씨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스님네들 피곤하지 또 예금한 거 부숴지지 또는 아무렇게나 써서 온통 공덕이 되질 않아서 남이 정작 찾아 가지고 나갈 땐 맨손 들고 나가게 한다면 그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면 구렁이 밖에 더 되겠습니까? 수없이 모습을 갈아서 바꿔서 무명을 쓰고 나오는데 말입니다. 허! 이 도리를 안다면은 참 무서운 도리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그대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아주 좋습니다.

다섯 번째, 초파일 등입니다. 하하하. 이 초파일 등, 전자에 보면 말입니다, 갖은 사찰에 돈 많이 내는 사람은 큰 등, 돈 적게 내는 사람은 작은 등, 얼마짜리 얼마짜리 얼마짜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다 똑같듯이, 이것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등은 누구나가 다 똑같이 달아야 합니다, 똑같으니까. 그러나 불을 켜는 사람에 의해서 이거는 철두철명하고 에누리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백만 원을 했으면 백만 원의 물건을 가져갈 거고 만 원을 냈으면 만 원짜리 물건을 가져갈 거고, 그건 자기네들 자유지, 자기네들이 어떠한 애고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자유스럽게 할 뿐이지, 왜 스님네들이 걱정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스님네들은 남이 얼마만큼 아픈지 얼마나, 어떠한 용도인지 그것도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은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애고가 이런 것이 있다, 병고에 이렇게 휘달린다, 내가 취직을 못 하고 놀아서 가정이 아주 살기가 어렵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가왔을 때에 자기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기 거짓이 없이, 자기가 쓰레기가 많아 치울 것이 몇 트럭이라면은 몇 트럭 값을 있으면 내야 하고, 몇 트럭 치울 거라도 내가 몇 트럭 치울 금액을 줄 수가 없을 때, 어려워서 줄 수가 없을 때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등을 켜야 되지 않을까요? 다만 얼마라도 내고 말입니다.

그러니만큼 이거는 등도 똑같아야 하고, 정성은 정성대로 여러분의 차원대로 정성을 지극하게 해서 하시는 게 바로 사월 초파일날 등입니다. 마음의 밝음! 그래서 마음의 등이라는 것은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지지 않아 천하 없어도, 바람이 불어서 온통 나무가 쓰러지고 불이 다 꺼져도 마음의 불이라는 것은 꺼지질 않습니다. 이러한 등을 켜십시오. 이러한 등을 켜시는 것이, 우리에게 공덕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을 갖게 되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게 되고, 세세생생에 이 고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심사숙고하고 잘 들어서 그대로 행하시면 이 시대에서 아주 빠지지 않는 삶을 누릴 거고, 빠지지 않는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꺼지지 않는 마음의 등을 켜십시오.
이러한 등을 켜시는 것이 우리에게 공덕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을 갖게 되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게 되고,
세세생생 고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3년 5월 16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